

AUTHOR 이형기

TITLE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생활

IN 월간고신

61호 (10, 1986): 26-29.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생활

—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 신학이

평신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종교개혁 신학의 여러 주제들에 관련하여 오늘을 사는 평신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할 수 있으나 본인은 종교개혁신학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신앙을 가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주류를 관심하면서 본 논고는 칼빈이 대표하는 개혁신학 전통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검토하려 한다.

그래서 본인은 종교개혁의 종류, 루터와 칼빈이 대표하는 종교개혁신학과 현대의 “신·종교개혁신학”에 대해서 언급한 후 주로 칼빈의 신학적 유산을 물려받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규명하려 한다.

다양한 종교개혁의 유산들

종교개혁의 종류는 여럿이 있다. 첫째, 루-터가 독일에서 성공으로 이끌었고,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확산된 루-터계통의 종교개혁이 있으며 둘째, 쥘리우스, 부처, 칼빈등이 스위스에서 성공시킨 개혁 교회계통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이것이 불란서,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푸랑크푸르트, 폴란드 등으로 확산되었다. 셋째, 스위스 계통의 쥘리우스의 종교개혁에 불만을 품고,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재세례와 장년세례만을 주장하며, 국가공직자와 더불어 손잡는 종교개혁을 거부한 바 좌경화 종교개혁과 독일의 칼스타트와 토마스·문처같은 과격주의적 종교개혁도 있었다.

넷째, 카톨릭 계통에서는 반 종교개혁이 일어나 트렌트회의의 교리선언을 가져왔다. 이처럼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종류

우르시우스와 오레리안에 의해 쓰여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적인 친밀성과 멜랑히톤적인 사랑, 칼빈의 불을 멎었게 조화시킨 작품이다.

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중 루-터와 칼빈은 개신교종교개혁의 주류를 이루었다. 현대의 개신교신학자들 가운데 칼 바르트, 에밀부룬너, F. 고가르텐, 니그텐, 오울렌 등을 가리켜 신·종교개혁신학자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들의 신학유산은 대체로 루터와 칼빈, 더 소급하여 어거스틴등 고대 교부들에게서 온 것이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에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에 표준하여 오늘을 사는 평신도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루-터의 신학사상을 집약하여 멜랑히톤이 펼쳐 낸 아우그스버그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 칼빈선생이 쓴 제네바신앙고백, 화란의 신앙고백,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등 16세기의 신앙고백들은 종교개혁신학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영국의 청교도들의 투쟁역사의 소산인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특히 미국에서 수정을 거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역시 개혁교회 계통의 기독교신앙을 잘 요약해 주고 있으나 1562년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고백들 중

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은 Z. 우르시우스와 K. 오레리안에 의하여 쓰여졌고 독일의 파레티네트주의 프레드릭 3세의 큰 협조로 공포되었고 실천되었다. 이 신앙고백에 나타난 신학사상은 주로 칼빈의 신학이요 어느정도 불링거의 영향하에 있으며 루-터의 주요 신학사상에 대하여도 개방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고백서의 내용이야말로 루-터적 내면적 친밀성, 멜랑히톤적인 사랑, 그리고 칼빈적인 불을 멎었게 조화시킨 신학이라고 말한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칼·바르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석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기독교적 가르침」이 있으며 H. 오토가 쓴 「교의학과 설교」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골격으로 하는 현대적 조직신학의 전개요, 본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드류(Drew) 대학의 B. 톰슨 등이 펼쳐 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대한 논문모음」 등이 있다. 그래서 본 요리문답의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따라서 루-터와 특히 칼빈이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 사실인 바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찾는 것은

크나큰 역사적-신학적 의미로 갖는다.

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인간의 고뇌에 대하여, II.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III. 감사에 대하여인데, 전체가 문답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29 물음과 이에 대한 답으로 되어있으며 대단히 간결하며 성경귀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3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I부는 인간이 성경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다. 모든 계명들의 총화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모든 인류가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한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동시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처럼 범법의 차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업을 불신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몽매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용하지 않은 자연인은 범법 이전에 이미 죄인이다. 신·망·애의 결핍 그 자체가 죄악이다.

II부는 I부가 말하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를 논한다. 누가 어떻게 인간을 죄와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본 신앙고백은 이 두번째 부분에서 죄 없으신 인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요지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복음 (The Gospel)을 중심한 3위 1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다루는데, 주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풀어나간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논하며 세례와 성만찬으로 끝맺을 한다.

사도신경은 역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풀이된 바 기독교신앙의 요약이요 성경내용의 일목요연한 요약으로서 본 요리문답에서는 구원론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 들어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르트의 「교의학개요」, 부른너의 「나는 3위 1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및 판넬베르크의 「사도신경」은 모두 사도신경 내용의 골격을 따라 집필된 교의학으로서 기독교신앙의 요약이다. 그리고 본 요리문답 두번째 부분에서 교회공동체의 주축을 이루는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논하는 것도 구원론에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III부는 「감사에 대하여」에 관하여 논하는 데, 이는 I부 죄와 심판으로 부터 II부 구속받은 기독교인이 교회에 참여한 후 기쁨이 넘쳐 흘러나오는 나머지 III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인들 내지 교회공동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은 나머지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마음이 솟아나는 데 있다. 복음과 성령, 그리고 이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은 모든 기독교윤리의 대 전제이다. 은혜와 신앙은 샘솟는 사랑과 공의의 근원이다.

III부는 십계명풀이와 주기도문풀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구원론은 기독교인의 할 일은 기도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좌절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는 바 자연법과도 연결점을 갖는 윤리강령의 근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나님이라」에 나타나 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구원론이 기독교의 모든 윤리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들의 근원적 모형이요 모든 기도들의 공통 본모이다.

이처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는 바 기독교의 본질을 이룬다. 특히 우리가 논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기독교의 본질을 3가지로 보는 바 현금의 신학사상의 골격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 골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신학을 비판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현금의 신학사상의 골격을
마련해 주었다. 이 골격을
갖추지 못한 잡다한
이야기만 늘어 놓은 신학을.....

맺는 말

오늘날 개혁교회에 속한 평신도들의 경우 개혁신학의 올바른 계보와 신학적 특징을 옳게 알아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래서 본인은 개혁교회의 고전적인 신앙고백서요 무엇보다도 칼빈의 신학을 내용으로 하며 루-터신학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개방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소개하였다.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요리문답을 잘 배움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무도 복잡한 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간결히 소개하는 요리문답의 연구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루-터쪽의 아우그스버그고백(Augsburg Confession 1530)과 더불어 종교개혁신학의 유산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해주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

ph. D 장신대학 신대원장
역사신학